

인권 자료실		
98 2/20	All	20

왜곡된 언론보도와 에이즈 정책에 대항하는 범동성애자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산하 여성동성애자인권단체 「끼리끼리」

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하이텔 동성애자인권단체 「또하나의사랑」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 「대동인」

나우누리 동성애자/퀴어 모임 「레인보우」

서울대학교 동성애자인권운동 모임 「마음003」

수신: 사회부 담당

발신: 범동성애자비대위 공동대표 6인

한바다(끼리끼리 회장), 김기현(친구사이 회장), 김현구(또하나의사랑 시삽), 양지용(대동인 대표), 김민영(레인보우 시삽), 배준호(마음003 대표)

제목: [범동성애자비대위 결성]의 보도에 관한 협조

일자: 98년 1월 26일

별첨: 범동성애자비대위의 성명서 1부

구분	배포일	보도희망일자	매수	담당자	문의
보도자료	1월 26일	1월 27일 조간부터	3 매	양지용 비대위 공동대표 대동인 대표	전화/팩스 02-923-0609 (오후 7-10)

왜곡된 언론보도와 에이즈 정책에 대항하는 범동성애자 비상대책위원회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 사항들에 대해 귀사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다음의 내용을 기사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자인권단체를 언론보도와 에이즈 정책 대한 항의 전개

1. 지난 1월 6일과, 9일자의 국내 유수의 중앙일간지들에는 [동성애 에이즈 급증], [에이즈연맹, 국내 동성애자 11만명 추정] 등의 제목의 기사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KBS는 1월 7일자 뉴스파노라마에서 동성애자-에이즈 관련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보도들이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또한 에이즈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심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 우리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산하 3개 단체(끼리끼리, 친구사이, 또하나의사랑)와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 나우누리 레인보우와 서울대

마음003 모임이 모여 98년 1월 25일, [왜곡된 언론보도와 에이즈정책에 반대하는 범동성애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비대위는 6명의 공동대표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비대위를 결성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동인협과 대동인을 중심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각종의 항의를 하였습니다. 1월 22일, 위의 두 단체는 [에이즈를 동성애자들만의 질병으로 치부하지 말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에이즈퇴치연맹과 KBS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23일 오후 2시에는 에이즈연맹을 항의방문하였습니다.

이 항의방문에서 우리는 연맹측에 우리가 요구한 바의 대부분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4시 위 두 단체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올바른 에이즈정책의 시행을 촉구하는, 피켓팅과 가두 행진 등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4.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문제의 보도의 근거가 된, 논문에 대한 현재의 입장과, 연맹 측의 동성애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그 시기는 연맹의 총회가 있을, 2월 3일 이후가 될 것입니다. (연맹이 공식 입장을 밝힌 후에 다시 보도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KBS는 우리가 담당자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이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5. 비대위는 1월 중 내부 결의대회를 거쳐, 2월에 있을 민노총의 집회에 연대하고, 2월 14일에는 독자적인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외국의 동성애자 인권 단체와 에이즈운동단체, 그리고 국내의 사회단체들에 적극적인 연대를 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2일 동인협과 대동인의 공동성명서에서 우리가 에이즈연맹측에 보도자료 배포의 책임을 물은 부분을 정정합니다. 연맹측은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4. 앞으로 비대위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귀사의 지면이 많은 다양한 입장을 가진 이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

KBS를 비롯한 언론들은 동성애자-에이즈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올바른 에이즈예방운동을 정립하라**

왜곡된 언론보도와 에이즈정책에 대항하는 범동성애자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범동성애자비대위는 최근 언론의 동성애자-에이즈 관련 일련의 보도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에이즈예방운동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들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중대히 침해하고, 에이즈의 예방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국내외의 모든 동성애자들을 모으고,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사회 단체들과 연대함으로써,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최근 한국의 다수 언론들은 [국내 에이즈감염자 총 747명], [에이즈연맹, 국내동성애자 11만명 추정] 등의 표제로 "전용상담소를 동성애자 밀집지역에 설치하고 어릴 때부터 성적 호기심이나 충격을 잘못 관리해 동성애에 빠져드는 경우가 없도록 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우리는 악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기사를 보도한 언론들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최근 일련의 기사들은 에이즈 자체에 대해 어그로 치지 않고 에이즈의 도성애자로 지적적스

연관시킴으로써, 동성애라는 성적지향성이 HIV 감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편견을 조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 동성애자를 에이즈의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상황이 한국에서 재현되는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

우리는 지난 1월 7일자 뉴스파노라마 보도에서 일부 동성애적 성행위 자체가 에이즈 전파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과 같은 보도를 한 KBS에 사과방송과 정정보도를 강력히 요구한다.

KBS는 에이즈와 동성애자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동성애자 전반을 매도하고, 동성애자에게 에이즈 전파의 모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에이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증폭시켰다.

우리는 KBS의 이러한 시도를 경계하며, KBS에 공정한 보도에 대한 책임을 촉구한다.

우리는 에이즈연맹측에, 연맹의 명의로 보도된 기사들에 대해 해명하고, 그 보도들의 근거가 된 논문에 대해 현재의 입장을 비롯해, 동성애자에 대한 연맹측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연맹이 WHO에 제출한 의견서 형식의 논문을 비롯해, 지금까지 연맹측의 에이즈예방운동이 동성애자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조장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연맹이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과, 아울러 지금까지의 행위들에 대해 분명한 해명과 사과가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에이즈 정책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의 에이즈에 대해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 순수한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책을 세우길 바란다. 우리는 동성애자에 대한 에이즈예방운동비용이 에이즈운동을 벌이고 있는 동성애자인권단체에 지급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한국에서 동성애자에게 주어지는 에이즈와 관련된 오명을 씻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에이즈 예방을 위한 각종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난 22일 우리의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의 [에이즈연맹 보도자료 배포] 부분을 정정한다. 연맹측은 당해 기사관련 보도 자료를 유포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우리가 연맹측에 보도자료 배포의 해명을 요구하는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038180028

TS\0e\83 JT:3e:48

국무총리

1998년 1월 25일

031e51315

TS\0e\83 JT:35:08

국무총리

왜곡된 언론보도와 에이즈정책에 대항하는 범동성애자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03143e818

산하

여성동성애자인권단체 「끼리끼리」

033e821ee

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하이텔동성애자인권단체 「또하나의사랑」

031e44e34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 「대동인」

0e52512134

나우누리 동성애자/퀴어 모임 「레인보우」

031e44e34

서울대학교 동성애자인권운동 모임 「마음003」

0218183283

TS\0e\83 JT:34:1e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무총리

3

TS\0e\83 JT:32:21

국무총리

국무총리

배수

874